

## 조경/산림/원예-12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활동과의 관계

박구원<sup>\*</sup>, 조태동<sup>\*\*</sup>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금일 관광레크레이션은 그린투어리즘, 에코투어리즘 등으로 나타나듯이 자연자원(자연환경)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 관광레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활동이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고는 이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사례로,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한 것에 있다.

### 2. 연구방법

#### 2.1.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연조건이 다른 지역과 관광레크레이션 정비와의 관계, 관광자원(자연의존도)과 관광객 유치력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광레크레이션 시설정비동향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정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개략적인 정비이상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연자원 및 그의 형태가 관광레크레이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 2.2. 연구방법

본 고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관광레크레이션자원을 대상으로 (1)관광레크레이션자원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와 (2)자연자원이 관광레크레이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전자에서는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크게 5개 유형(해안생태, 수변산악, 휴양온천, 농촌체험, 역사문화)으로 나누어 각 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그의 이용활동, 동행 형태, 이용패턴을 조사했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유명한 양주 원골마을을 방문한 방문객 184명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역사문화자원만을 이용한 이용자와 주변 자연자원을 동시에 이용한 이용자간의 재방문 비중을 조사했다.

<표1> 조사내용

구분	관광자원유형에 따른 이용행태	자연자원과 관광레크레이션활동
조사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기도 주요 관광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양주 원골마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안생태자원, 수변산악자원, 휴양온천자원, 농촌체험자원, 역사문화자원을 대표하는 관광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아지 및 별산대놀이터 등이 대상지 중심에 있고, 주위에 불곡산이란 수려한 경관자원이 있음</li></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문객 대상의 설문조사(503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문객 대상의 설문조사(184부)</li></ul>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용활동, 동행형태, 이용패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용목적에 따른 재방문비중 등</li></ul>

### 3. 조사결과

#### 3.1. 관광자원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조사결과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사이에는 이용행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안생태자원과 산악경관자원 등 자연자원을 방문한 방문객은 주로 개인이용자가 많고 그 활동이 휴양/휴식 등 정적인 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역사문화자원 등 인문자원을 방문한 방문객은 5인 이상의 단체이용자가 많고 체험, 탐방 등 동적인 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광지의 이용패턴을 보면 해안생태관광 및 산악수변관광은 대상지 한곳을 이용한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반면, 농촌체험관광 및 역사문화관광은 다른 관광지와 복수로 이용하는 비율(약30%)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목적형 관광(目的型觀光)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 3.2. 자연자원이 관광레크레이션활동에 미치는 영향

양주 원골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전통문화만을 즐기기보다는 전통문화를 베이스로 휴식과 기분전환을 즐기려는 내방객, 또는 불곡산 등반을 하고 문화자원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방자의 방문목적과 방문회수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통문화답사]를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처음방문자의 비율이 높고 방문횟수에 따라 그의 비중이 작아지지만, 주변 자원을 이용하고 [휴식 및 기분전환]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5회 이상의 재방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자원이 재방문율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방문객들에게 원골마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자원을 물은 결과, 임꺽정 생가터가 24.8%, 별산대놀이가 22.3%, 원골의 전원적 풍경이 21.0%, 관아지가 3.8%, 향교가 12.1%, 금화정이 4.5%, 원골순대가 7.6%, 대모산성이 3.8%을 점해, 관아지, 향교와 같은 개별시설보다는 역사적 인물, 전통놀이, 자연풍경에서 각인되는 이미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 4. 결 론

경기도 주요 관광자원을 사례로 보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정적인 관광 활동과 목적형 관광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인문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동적인 관광, 회유형 관광의 성격이 강하는 등 자원유형에 따라 이용행태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레크레이션개발에 있어서는 자원에 따라 그의 정비이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안생태 및 수변산악과 같은 자연자원을 관광레크레이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휴식 및 커뮤니티 교류를 위한 시설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주 원골마을을 사례 조사한 결과, 문화자원은 주변 자연자원과 동시에 이용하는 것에 따라 재방문율이 높고, 관광지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인 시설보다는 역사적 사실, 전체적인 자연경관에서 인식되는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자원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재방문율 및 관광지의 인식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岡本伸之, 2001, 觀光學入門, 有斐閣アルマ

溝尾良降, 1982, 觀光地の類型區分の必要性, 内閣總理大臣官房審議室

林業經營研究所, 1972, 都市林, 農林出版株式會社